

“어떻게” 보다 먼저 “왜”

08/24/2025

서구 문명의 발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어떻게”를 질문하며 방법을 찾아내었던 서구 문명은 문명의 발달과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현재 가장 선진화된 나라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배웠던 서구적이면서 선진적인 질문은 “어떻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뿐 아니라 서구 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어떤 현상과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혹시 그것이 방법론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돈 것이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합니다. 그러다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늘 잘못했고 그런 어두운 느낌으로 예배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가 학교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모가 가르쳐준 것을 다 실행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계획한 일이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부모에게 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다면 듣기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와 신앙적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주일예배에 국한한다면, “비록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 주일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앞으로의 한 주를 주님의 뜻에 따라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와 신앙적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에 대하여 질문하는 신앙적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를 왜 택하셨을까.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왜”에 대한 질문은 연약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알아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질문은 “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이유를 찾아서 그 뜻에 부응하는 한울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